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201>

JCCT 2022-9-24

##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발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Development of Wanju-Gun Cultural City

박상혁\*

Sang-Hyuk Park\*

**요약**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다. 이 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 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주요어** : 문화, 도시, 정책, 도시 재 창조, 완주군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that provides basic data and direction related to the cultural city policy of Wanju-gu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at have succeeded in cultural city policy based on case documents. This study consists of the instruction of Chapter 1, the review of cultural city policies in Chapter 2,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in Chapter 3,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in Chapter 4, and the conclusion of Chapter 5. Chapter 2, the Cultural City Policy Review, deals with the concept and types of cultural cities, and policy-related development projects. Chapter 3, Domestic Case Analysis, analyzed the Seoul City Urban Renewal Project, Seoul Cheonggye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hangwon Public Art Project. Chapter 4, Overseas Case Analysis, analyzed the Kanazawa Civic Art Village in Japan, Bant 1929 in Yokohama, Japan, and Zollverein in Germany. Through these cases, we'd like to provide the successful policy direction and basic data of the cultural city of Wanju-gun.

**Key words** : Cultural, City, Policy, Urban Renewal, Wanju-gun

#### 1. 서론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발전을 위한 국내사례 현황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

도시 정책 내용을 다루며 특히, 해외 성공 사례를 접목하여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연구를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접근방법 및 연구의 목표는 '완주군

\*정희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5일

Received: July 28, 2022 / Revised: August 22, 2022

Accepted: September 5, 2022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문화도시 정책발전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초 환경분석을 위해 문헌 매개체 분석은 문화도시 정책관련 연구는 문 및 석·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론적 고찰 과정을 적용하여 심도있는 문헌사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결과 및 사후연구를 위해 최신화된 문화도시 정책관련 내용을 다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 사례 분석', 제4장 '해외 사례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순이다. 특히,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문화도시의 유형,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정책관련(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정책 성공요인)순으로 이론적 고찰부분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분석' 부분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국내 사례를 반영하였다.

제4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해외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결국,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적용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정책적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II. 문화도시 정책 고찰

문화도시란 “문화적인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지정도시”를 말하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1]. 문화도시는 도시의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유럽각료회의」에서 그리스의 멜리나 메리쿠리(Melina Mericuri)가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 도시를 '문화도시(culture city)'로의 지정을 주장하면서부터 대두되었다[2]. 이러한 주장 이후 EU 회원국들은 1985년에 '유럽문화수도'로 그리스 아테네를 최초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문화도시 지정이 이뤄지고 있으며[3]. 문화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를 창립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4].

문화도시 유형은 문화도시 유형을 창조성이 강조된 도시경영형, 환경이 강조된 도시설계형, 공동체 의식이 강조된 커뮤니티형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5]. 또한, 문화도시는 그 자체로서 다양성과 상상력을 갖추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6].

문화도시 조성은 문화정책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선도시책이었다. 이제까지 지역문화 정책부문에서 해보지 않은 신규 대형 국책과제라는 측면과 국가가 특정 도시를 문화적으로 변화시켜 문화적 환경조성과 문화기반의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제적인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거대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7].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나름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유함으로써 도시발전과 도시기능의 중심으로써 기능을 하였다[8].

문체부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의 체계 변환 등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문화도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에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9].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하드웨어 인프라 및 브랜드 중심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휴먼웨어로서의 문화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도시에서 생성 및 향유되는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다[10].

## III. 국내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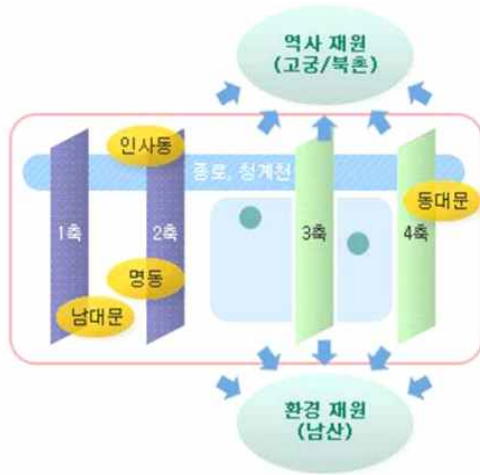
### 3.1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계천변의 동서축과 남북방향 4대축을 중심으로 강북 도시를 문화, 역사, 비즈니스, 환경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11].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광화문광장 조성, 명동~인사동 전통문화와 젊음이 넘치는 관광거리 조성,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축 조성, 역사전통 첨단이 공존하는 관광문화축 조성, 창경궁 종묘~남산을 녹지로 연결한 남북녹지축 완성, 동대문~장충단공원 복합문화 녹지축 조성 등이 있으며[12],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주요 세부내용은 아래 Table 1과 Figure 1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1)  
 Table 1. Urban Renewal Project in Seoul(1)

내용	추진사항	세부구성
역사 문화축	광화문광장 조성	월대와 육조거리 재현, 첨단 IT 시설 설치, 해치마당 조성 등
	세종대왕 동상 건립	과학 발명품 조형물 3개, 후면부 열주 6개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 조성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가로 조성
	세종로 주차장 북측 진입시설 확충 세종로 주차장~세종문화회관 연결 통로 신설	
	남대문 재래시장 정비	가로 디자인, 건축물 리모델링, 옥외 광고물 정비 등으로 시장 이미지 획기적 개선
관광 문화축	명동~인사동 연결	보·차도 포장, 가로수 식재, 가로시설물 정비, 차없는 거리(명동길) 확대 운영
남북 녹지축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	현대상가 철거 세운녹지축 조성공사
	퇴계로~남산간 녹지축 조성	가로공원 조성
	창경궁~종묘간 단절구간 복원	조선시대 고궁담장 및 복신문 복원 율곡로 6차로 확장 동회문앞 월대 복원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재 인용

그림 1.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2)  
 Figure 1. Urban Renewal Project in Seoul(2)

### 3.2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

청계천은 도심부에 위치한 50년 서울시 역사와 깊은 관련을 지닌 지역이며 청계천 일대 지역은 1950년대 중반 식민지와 전쟁 후 대표적으로 가난한 슬럼 지역이었다[11]. 청계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부터 1977년까지 청계천을 복개(覆蓋)하였다[11]. 또한, 청계천 주변 판잣집들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상가 건물들을

세우고, 오수가 흐르던 하천은 아스팔트 도로로 덮여 서울의 가장 낙후된 지역을 근대화 산업화 상징의 공간으로 바꾸었다[11].

하지만, 복개 이후 40년이 지나자 청계천은 무분별한 개발과 낡은 건물들로 인해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13]. 서울시는 2003년 7월에서 2005년 9월에 걸쳐 40년간 덮여있던 청계천을 다시 복개(復開)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 등 다리를 22개 복원하고, 12.04km의 산책로를 만들고 10개의 분수와 조형물들을 설치하였다. 현재 시민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공연, 축제 등이 청계천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11], 청계천 복원 전경은 아래 Figure 2와 같다.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2. 청계천 복원 전경  
 Figure 2. View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 3.3 서울시 금천예술 공장

서울시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 내 위치한 금천예술 공장은 1978년 전자기 코일공장이었다가 1991년 전화명세서를 제작하는 인쇄공장으로 바뀌었고, 서울문화재단에서 2009년 10월에 리모델링한 서울시 창작공간이다[11]. 레지던시 스튜디오 19개실, 호스텔 5개실, 공동 작업실 및 공연연습실이 갖춰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팀의 입주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입주작가는 시각예술, 설치/영상, 공연/실험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로 5~7평의 작업실에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다[11].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공간과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11],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 Table 2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간을 시민활동 및 예술가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 창작공간이다[11]. Bank ART 1929는 갤러리, 1929홀, Bank ART Shop, Bank ART Caf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품전시, 연극, 댄스, 음악공연, 대관, 카페 및 주점운영, 뱅크아트 스쿨 등 다양한 사업과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11].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노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예술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Bank art School, 국제행사나 학술세미나 등의 각종 심포지엄, 해외교류 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지역민의 네트워크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오픈스튜디오, 연계학교 학과 학생들의 전시, 관련 학술행사 등이 있다[11]. Bank ART 1929는 예술가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개방된 시민을 위한 공간이며 관리 주체는 공모에 따라 민간단체인 Bank ART 1929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과 즉흥성을 공존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목적을 두고 플랫폼이자 교육의 공간,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15], Bank ART 1929의 전경은 아래 Figure 4로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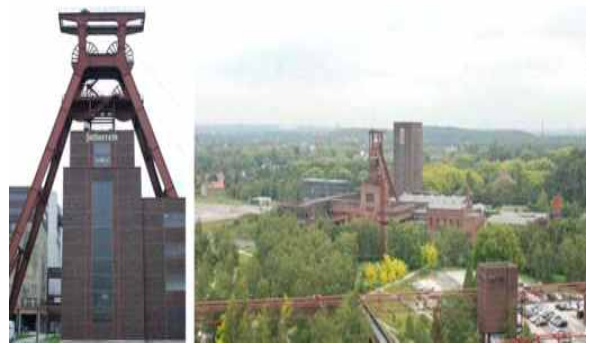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4. Bank ART 1929 전경  
 Figure 4. Bank ART 1929 View

#### 4.3 독일 Zollverein

인구 약 3,000명의 작은 마을인 독일 에센시 졸페라인(Zollverein) 광산공업지대는 19세기에 철공소, 강철공장, 석탄, 탄광 등이 발전하면서 세계 최대의 탄광 지역이었으며 가장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공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했다[11]. 1986년 폐광 이후, 외형과 내부 모두 완벽하게 보존하고 내부에 새로운 재료와 전시기법을

사용하여 전시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탄광 창고는 아뜰리에로 개조하여 회화나 조각을 작업하는 작가들이 사용하는 창작스튜디오와 박물관, 예술학교, 디자인 연구소 등의 시설이 있다[15]. 졸페라인 광산공업지대는 1986년 폐광하기로 결정된 이후 폐허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당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가 루르 석탄 회사로부터 전체지역의 모든 시설을 구매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정하여 개조 및 보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2년 졸페라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11], 졸페라인 전경은 아래 Figure 5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5. 졸페라인 전경  
 Figure 5. Zollverein View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역사를 활용한 문화도시 정책사업이다. 즉, 국내 사례연구 중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경우 역사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문화축 조성, 역사전통이 공존하는 관광문화축 조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화도시 정책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사업도 서울시의 문화도시 정책관련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문화도시 1번지’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문화도시 정책을 수립 및 착안하여야겠다.

둘째,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다. 즉, 국내 사례연구 중 경남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지역 문화사업으로 손꼽힌다.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은 이미 삼례읍 지역에 형성되었지만, 문화도시 사업연계 활성화 측면에서 수요자의 만족도와 더불어 활성화 측면은 미비하다. 따라서 문화도시 연계 사업을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정책적 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대 유산이 문화창조의 장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다. 이는 해외 사례인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사례의 접목이다. 즉, 1993년 문을 닫은 방직공장 부지와 창고를 가나자와 시에서 인수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곳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를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사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은 9만 7,000 부지에 자리한 4개 동의 창고를 드라마, 뮤직공방, 예술공방, 연극, 미술, 창작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65일 24시간 개방하여 300엔(약, 4,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사업도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사례를 접목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세수 수입증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될 것이다.

## References

[1] Y. H. Yu & M. G. Choi & J. Y. Jeong, “The Effect of Cultural City Factors on Urban Identity and City Brand Equity”,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Vol. 28, No. 3, pp. 89-108, 2021.

[2] D. H. Oh. & K. S. Oh, “A Study on Typology and Success Factors of Small and Medium-sized Culture Cities: Focused on Eight European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9, no. 3, pp. 91-130, 2016.

[3] Y. N. Lee, “A study on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cultural information services in cultural cities”, Master’s thesis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2.

[4] J. M. Dong, “The impact of Cultural Cities’ Characteristics&Urban Service on Regional Activation”, Master’s thesis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0.

[5] H. J. Kim, “A Study on Fostering for Cultural Cities”,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4.

[6] D. Y. Won, “Research on culture city theory development and city culture”, Association Humanities Contents, no. 13 , pp. 137-164, 2008.

[7] I. S.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ultural factors in urban space on the value of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Ph.D. thesi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8] S. J. Lee, “The Korean cities of culture as regional development hub: A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s and future directions”, Report of the Korea Institute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9]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Cities in Korea, 2018.

[10] W. S. Seo & K. H. Cho, “How to create social value in cultural city : comparing between European capital of culture and Korean cultural city projects”, Cultural and Economic Research, vol. 22, no. 1, pp. 129-160, 2019.

[11] H. Y. Joo, “A Study on Measures to Lay the Groundwork for a Cultural Creative City through the Downtown Regeneration, Master’s thesis at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12] <https://urban.seoul.go.kr>

[13] S. M. Ahn, “A study on effect of design innovation on city brand promotion in urban marketing strategy : focusing on a case study of cheonggyecheon”, Master’s thesis of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6.

[14] D. B. Kim, “A research on the ways of improving Seoul art space program : with focus o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creative city Yokohama”, Master’s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15] K. J. Koo, “A Study on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the Coal Museum utilizing an abandoned mine in jeong-sun”, Thesis of Master’s Degree in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 이 논문은 2021년도 완주도시문화지원 센터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